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최옥주^{1*}, 김동성²

¹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²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The effects of adolescent fandom activity on self-esteem :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Choi, Ok-Joo^{1*}, Kim Dong-Song²

¹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ersity

²Doctor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의 7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78명의 설문 데이터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을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낮추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낮추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청소년기,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팬덤활동,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fandom activity of adolescents mediates ego - resilience when affecting self - esteem. For this, data from the 7th year (2016) of the first 4 panels of th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and the questionnaire of 2,378 first - year high school students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andom activity showed a positive predictive value of negative self - resilience. Second, the fandom activity predicted the self - esteem as a negatively. Third, ego - resilience predicts self - esteem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Fourth, ego - resili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ndom activity and self - esteem. In other words, it is confirmed that the fandom activity directly lowers the self - esteem but indirectly decreases through the ego - resilience.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 of the fandom activity on the self - esteem of the adolescents and the process leading to it.

Key Words : Adolescence, Ego - resilience, Self - esteem, Fandom activity, Mediating effect

* Corresponding Author : Ok-Joo Choi(joo6515@hanmail.net)

Received June 26,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27,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면서 거치게 되는 중간 단계로서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정신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야 하나 많은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다[1]. 무엇보다 한국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은 여러 문제 행동을 야기하게 되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인구 10만 명당 7.4명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여년 전에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운수사고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살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 경험비율은 21.4%, 음주경험은 43.5%에 달하며 한 해 청소년 범죄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2].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내면의 힘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내면의 힘을 의미하는 개념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이 거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여러 연구[3-4]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데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자아개념의 변화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므로[5] 이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다루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변인으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자기수용,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의 어휘로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5].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지, 신념, 정서, 행동 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스스로를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로 풀이된다[6]. 자아존중감 연구의 선구자였던 [7]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성공 정도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 모두에 의해 형성되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도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8].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실제 행동으로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 섭식장애, 약물남용, 우울 및 비행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9]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할하도록 돕는다[10].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변인들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과의 관련성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이란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약화하거나 강화하는 조절능력으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11]. 즉, 일시적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예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10].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생산적으로 행동하여 위기를 성장과 발달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12]. 청소년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데 때로는 여러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은 좌절과 우울감에 빠뜨린다. 이 때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를 이겨내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13].

이러한 자아탄력성이 가진 특징들은 종종 높은 자아존중감과 작지 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4]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또한 높아 직면한 문제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고등학생[15]과 중학생[16]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로 최근 팬덤활동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팬덤이라는 용어는 본래 ‘어떠한 대상에 열광적이거나 광적으로 추종한다’라는 의미의 ‘fanatic’이라는 어휘의

약어인 팬(fan)이라는 명사에 한 사회의 습성이나 기질 등을 경멸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접미어인 돔(dom)이 결합된 단어로서 특정 대상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컬었다[18]. 단어의 뜻에서 암시할 수 있듯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타를 외적으로 모방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신념까지 모방할 수 있는데[19]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의 왜곡된 자아정체감 형성[20]이나 현실을 도피[21,22]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23,24]에서는 팬덤활동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는 팬덤활동을 맹목적인 추종이라고 바라보기 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25]의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에 몰입하는 중·고등학생일수록 일상과 학교생활에서 더 즐겁고 활기찬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팬덤활동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팬덤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팬덤활동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이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자연스럽게 자아탄력성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6]의 연구에서도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르게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7]의 연구에서는 20, 30대 미혼 여성의 팬덤활동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삶의 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9].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정적관계에 있는 개념임에도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과는 정적관계, 자아존중감과는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이므로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세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이제 더 이상 일탈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이들의 자아탄력성과 더불어 팬덤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와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여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팬덤활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할 것인가?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고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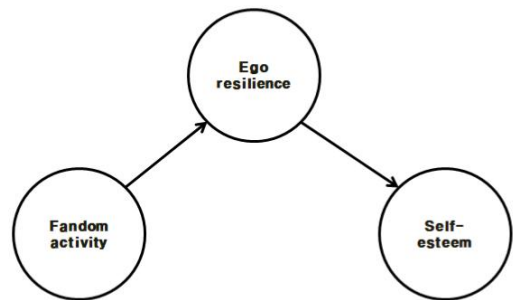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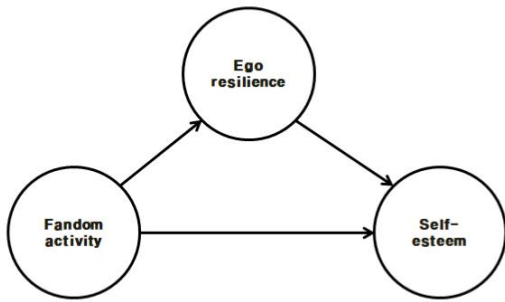


Fig. 2. Competitive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2016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7차년도의 연구대상자는 첫 조사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4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도를 지역별로 층화하였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을 이용하여 2,378명의 표본을 연도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78명의 데이터 모두를 이용하였으며 결측치는 평균대체법을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 52.3%, 여성 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남자학교 22.4%, 여자학교 22.4%, 남녀공학이면서 분반인 학교 23.5%, 남녀합반인

Table 1. respondents statistical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1036	52.3
	female	943	47.7
	total	1979	100.0
school	Male school	441	22.4
	Girls school	440	22.4
	Gender classification	461	23.5
	Gender	623	31.7
	total	1965	100.0
region	Seoul Gyeonggi Area	617	31.4
	Gangwon Area	93	4.7
	Chungcheong region	351	17.9
	Jeolla area	291	14.8
	Gyeongsang area	547	27.8
	Etc	66	3.4
total	1965	100.0	

학교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경기 지역 31.4%, 강원지역 4.7%, 충청지역 17.9%, 전라지역 27.8%, 경상지역 27.8% 기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2.2.1 팬덤활동

팬덤활동의 측정을 위해 [30]의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자주했다~4: 전혀 하지 않았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팬미팅 참석, 홈페이지 방문 등의 빈도를 측정한다. 오프라인 팬덤활동과 온라인 팬덤활동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오프라인 팬덤활동은 4문항, 온라인 팬덤활동은 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역산처리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팬덤활동 빈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오프라인 팬덤활동 .81, 온라인 팬덤활동 .75, 전체 .87로 나타났다.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측정을 위해 [11]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30]이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역산처리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31]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역산처리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분석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데이터의 정규분포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하였다. 넷째, 각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데이터가 구조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 비교 분석을 실시한 후 채택된 최종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산출한 결과, 측정변인의 왜도 범위는 $-.18 \sim 2.08$, 첨도 범위는 $.80 \sim 7.74$ 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8보다 작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Kline, 2005).

3.2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상관,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Fandom activity	Self-resilience
Ego resilience	-.05'	
Self-esteem	-.07''	.51'''

' $p < .05$, '' $p < .001$

3.3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32]이 제안한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잠재변인 하나 당 측정변인은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하며[33]. 측정문항이 많을 경우 여러 문항을 몇 개씩 결합하여 각 문항의 측정변수를 문항 꾸러미로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개별문항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정규성 문제를 줄이고 측정변인이 몇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추정할 모수가 감소하여 측정오차가 감소하며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다[10].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변인을 하나로 고정시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 크기에 따라 문항의 순서를 매겨 각 꾸러미에 높은 순으로 문항을 배열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여 각 세 개의 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FI=.987, TLI=.978, NFI=. 987, RMSEA=.057로 나타나 각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요인 부하량은 .4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8개의 측정변인으로 3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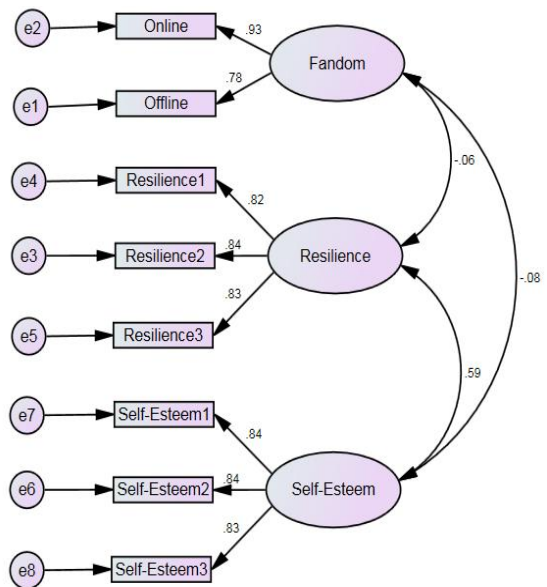


Fig. 3. Standardization path coefficient of measurement model

3.4 연구모형 검증

먼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더 나은 모형을 찾기 위해 카이제곱값을 이용한 적합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는 4.35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임을 고려했을 때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비해 좋은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은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Table 3. Research Model &Competitive Model Fit Index

	χ^2	df	CFI	TLI	NFI	RMSEA
Research model	147.73***	17	.987	.978	.985	.057
Competitive model	152.08***	18	.986	.979	.984	.064

***p<.001

다음으로 최종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과 Fig. 4에 제시하였다.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자아탄력성은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Final model effect analysis

Rout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Fandom activity -> ego resilience	-.06*	-
Fandom Activities -> Self-esteem	-.04*	-.03*
Ego Resilience -> Self-esteem	.58***	-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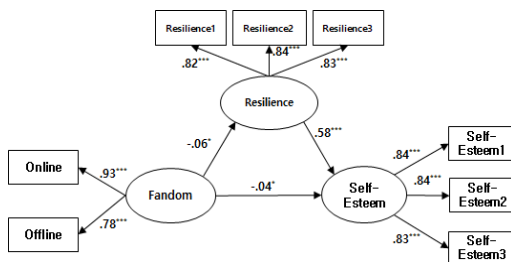


Fig. 4. Final model path coefficient

4. 논의

4.1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정신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시키기 위한 방략으로 팬덤활동을 권장하고 자아탄력성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와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은 자아탄력성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 [23]의 연구와 팬덤활동과 자아탄력성이 정적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2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팬덤활동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팬덤활동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위의 연구들은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면 본 연구대상은 고등학생이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팬덤활동이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34].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이제 막 아동을 벗어나 미래설계에 대한 부담이 다른 시기의 청소년에 비해 적을 수 있다. 중학생의 팬덤활동이 단순히 놀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을 찾아 행동하므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23]. 그러나 이들보다 진로문제와 같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고등학생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선망하고 추종하는 일이 자신의 앞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팬덤활동이 자괴감이나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생성된 부정 정서는 결국 자아탄력성을 낮추는데[3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28]와 마찬가지로 팬덤활동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 30대 여성의 팬덤

활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한 [27]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팬덤활동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업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안고 있는 고등 학생에게는 팬덤활동이 더 이상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학업 등의 일을 방해하는 활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에게는 팬덤활동이 놀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학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활동이 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수 있고, 이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35]. [28]은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학교규율을 잘 지키고 주어진 학업에 열심히 임할 때 이에 대한 강화물로 선망하는 연예인의 음반이나 공연티켓을 제공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을 밝힌 [17,36]의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37]. 이러한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도 낮추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팬덤활동의 빈도를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아탄력성과 함께 팬덤활동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팬덤활동은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거나[39] 학습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24]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인 요소가 있고,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문화로서 이들의 놀이가 될 수 있으므로 팬덤활동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미래와 삶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는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광적인 수준이 아닌 적절한 팬덤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지나친 팬덤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위험요소가 높은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행동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4.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다른 인지적인 개념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 변인인 팬덤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이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팬덤활동은 처음에는 맹목적이고 현실도피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요인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물론 최근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을 청소년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취미활동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이 부정적인 요소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최소한 고등학생에게는 팬덤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심리내적으로 이롭고 이들의 팬덤활동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과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수집했으므로 동일한 방법의 실시에 따라 변인 간 상호상관관계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인 간

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잠재성장모형과 같은 중단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팬덤활동과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양상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 J. Jeon & M. S. Yu. (2015). Self - esteem, career maturity, and micro - system variables affecting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Youth Studies*, 22(6), 75-104.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A Survey on Use of Youth Media and Harmful Environment*.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3] J. S. Baek, J. Kim & H. K. Jeong.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Background Factors, Self - esteem,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Flexibility of Adolescents: Comparison of Multicultural Youths and Adolescents in Jeonnam Area. *Youth Facility Environment*, 12(1), 127-142.
- [4] C. S. Lee & H. Y. Chang.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donation Motivation between adolescents' self - esteem and donation attitude.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16(6), 19-25.
- [5] S. A. Jeon & Y. S. Han. (2016). The effect of off-line and on-line fandom activity participation on adolescents' academic time management skills : A multi-level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6(1), 101-132.
- [6] D. W. Russell, J. H. Kahn, R. Spoth & E. M. Altmaier.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7] M. Dumont & M. A. Provost.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8] H. I. Jo. & M. K. Cho.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Maltreatment Experienc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4), 913-932.
- [9] J. Fiske. (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30-49.
- [10] M. H. Kang, K. H. Kim & S. K. Kim. (2007). *Contemporary Society, Children, Psychological Understanding*. Seoul: Sigma Press.
- [11] G. A. Bonanno.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
- [12] Y. S. Seo. (2010).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4), 1147-1168.
- [13] H. Jenkins. (2006).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NYU Press.
- [14] M. S. Choi. (2014).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health, social support, ego - resilience, hope, peer relationship skill and problem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15] L. M. Fenzel. (1992). The effect of relative age on self-esteem, role strain, GPA, and anxiet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3), 253-266.
- [16] K. S. Kim & H. D. Kim. (2011).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al Research*, 19(2), 143-170.
- [17] T. S. Shin, J. L. Hyun & H. K. Kwon.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Open Education Association*, 23(3), 45-64.
- [18]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19] M. Rosenberg.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52.
- [20] Y. I. Jo. (2011).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dolization of entertainer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21] G. E. Kim, J. W. Kim & J. Y. Park. (2009). Enjoying Fandom in Leisure: Focusing on the fan activities of single media operators. *Studies in Leisure Studies*, 6, 85-116.
- [22] H. G. Kim.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Fandom. *Journal of Journalism Studies*, 6, 66-80.
- [23] E. M. Ahn, J. S. Kim, former songwriter & H. J. Jung. (2013). Effects of Fandom Activities on Adolescents' Ego Resilience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Youth Research*, 24(2), 149-175.
- [24] S. A. Jeon & Y. S. Han. (2016). The Effects of Adolescents' Online and Offline Fandom Activities on the Learning Time Management Ability of Adolescents.

Korean Child Welfare, (56), 101-132.

[25] K. S. Ki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fan activity and the daily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6] S. S. Kim. (2013). The Effect on Youth Fandom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6), 167-176.

[27] S. H. Lee. (2015).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s in their 20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ctitious Emotions, Idol Affinity, Self - Esteem and Idol Idolizat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8] J. E. Na. (2017).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andom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of Self - 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8), 396-405.

[29] S. S. Kim & J. J. Ahn. (2012).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 Activities on Community Consciousness - Focused on Self - esteem and mediating role of peer attachment. *Social Welfare Research*, 43(1), 339-363.

[30] J. E. Gwon. (2003). *Parent and peer attach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methods and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31] M. Rosenberg.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3(1), 107-136.

[32] R. G. Simmons & D. A. Blyth.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Aldine Transaction.

[33] A. Raviv, D. Bar-Tal, A. Raviv & A. Ben-Horin. (1996). Adolescent idolization of pop singers: Causes, expressions, and rel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5), 631-650.

[34] H. J. Kim, Y. S. Lim & S. J. Oh. (2000). Poverty and Predictors of Youth, Relationship with School Life. *Family and Culture*, 12, 31-52.

[35] E. J. Cho. (2013). *The effect of parent support and daily stress on aggression and self - 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36] J. Y Kim, S. G Kim, S. H Kim, S. H Park & J. Park. (2017). Effect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impulsivity,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of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Biotechnology Psychiatry*, 23(3), 206-213.

[37] S. Coopersmith.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

[38] J. Y. Choi & B. W.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f the effects of negative emotion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Human Understanding*, 37(2), 67-86.

[39] J. M. Lee & H. W. Jung. (2018).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hange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Fandom Activity on School Life Adaptation. *Korean Youth Research*, 29(2), 35-67.

최 옥 주(Choi, Ok Joo)

[정회원]



· 2011년 8월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2월 ~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전공 특임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사회복지

· E-Mail : joo6515@daum.net

김 동 성(Kim, Dong Sung)

[정회원]



· 2002년 8월 : 평택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 2011년 2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사회복지

· E-Mail : ds1217@hanmail.net